



# 국산녹용 저가 판매 파문

— 시중가 절반 방송 판매, 단체장 공동 성명서 발표 —

국내산 녹용이 방송을 통해 시중가의 절반 가격에 판매돼 양록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9월 6일 농수산홍쇼핑에 출연한 양록인 A씨는 국내산 엘크 생녹용 상대 10냥을 118,000원에 판매했다.

이는 냥당 11,800원으로 일반 농가에서 상중하대를 골고루 섞은 녹용을 냥당 2만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에 비견했을 때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된다.

방송을 접한 몇몇 양록인들은 본회로의 전화를 통해 “그동안 농가에서 녹용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나 나를 비롯한 대다수의 양록인들은 바가지 상인이 되었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본회 관계자는 “냥당 11,800원이라는 가격도 터무니없지만 거기에 홍쇼핑사 수수료, 택배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홍쇼핑 납품가격은 더욱 낮았을 것”이라며 “수수료와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방송을 접한 소비자들도 익히 알고 있을

터라 더욱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쇼핑 방송에서 녹용을 판매한 A씨는 “방송판매는 당일 하루로 끝났으며 추가 방송은 없었다”고 말하고 판매량도 극히 적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회 김수근 회장 및 한국양토양록농협 한규성 조합장, 한국사슴연합회 강준수 회장, 한국사슴산업연구회 이철수 회장은 방송 직후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4개 단체장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차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으로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외국산 녹용과의 가격 경쟁도 힘겨운 상황에서 국내산 녹용간의 가격 경쟁은 그야말로 ‘제살 깎아 먹기’ 밖엔 되지 않는다”며 ‘방송이 아닌 개별 농가의 텀핑 판매에 대해서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록신문**